

주일에배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9월 25일 (제116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여왕의 죽음을 보며

지난 19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96세를 일기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영국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다.

나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서거와 장례식을 인터넷 생방송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이 깊었다. '역시 영국은 영국이야. 대국답네.'

여왕의 장례식에는 세계 200여 국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한때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의 정상들부터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까지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한 세기 동안 쌓아온 여왕 개인에 대한 존경심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영국의 저력이요, 국제적 영향력이라 생각한다. 과연 그 저력과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잘 유지되어 온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역사와 전통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 몇백년 된 나무는 결만 아름다가 아니라 뿌리도 아주 깊게, 아주 넓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나무는 잘라낼 수 있을지 몰라도 뿌리까지 다 걷어낼 수는 없다. 뿌리가 살아 있으면 나무는 살아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원뿌리와 잔뿌리에 대해 자주 말한다. 원뿌리는 민족의 정체성이다. 그것은 곧 전통이요 역사다. 그리고 잔뿌리는 원뿌리를 받드는 국민들로, 그들의 역량으로 나무인 나라가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한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경기 침체, 흔들리는 영연방 등 불안한 현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원뿌리가 건재하기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그것이 구시대적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오해다. 이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나 근본이요, 근간까지 흔들고 뽑아내서는 안 된다. 근본 없는 집안을 무시하듯 근본 없는 나라 역시 무시 받고 온전히 설 수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뿌리가 깊은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법, 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역사와 전통을 기본에 두고 변화의 물결을 헤엄쳐서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바란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속하신 분이다

자녀가 울고 있는데 외면할 부모는 없다.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애를 끓게 만들기 때문이다. 차라리 내가 자녀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길 원하는 것이 부모 아닌가. 이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수요일예배에 '왜 하나님은 하갈과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눈물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셨다.

정하지 말고 아내 사라 말대로 하갈 모녀를 내보내라고 권면하십니다.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어깨에 맨 채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하갈은 물도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 울어대는 아들을 바라보며 방성대곡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어미로서 어찌 보겠나며 애끓는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아이의 우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사 곁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창21:8-19).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오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사38:5-6).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나는 눈물에 약속하다, 나를 전심으로 찾으며 내 앞에 나와 전심으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다 적시는 눈물의 기도에서 비를 멈추고 햇빛으로 응답해주신 메인스타디움 집회

"나는 목회 38년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눈물에 약속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녀가 없어 애통하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였던 뜻을 돌이키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삼상1:4-20).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하녀였던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첩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고 놀림을 당하자 분노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 모녀를 내쫓으라고 바가지로 끌어냅니다. 이를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하여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니 격

을 이루게 해준다는 약속까지 주셨지요. 눈물에 약속하신 본성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히스기야에게는 아예 유언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사형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사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히스기야는 즉시 벽을 바라보고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사38:2-3).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통곡 소리에 하나님은 즉시 뜻을 돌이키시고 이사가 궁을 나서기도 전에 역전의 메시지를 하달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 애통하며 기도했고, 메인스타디움 집회 때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다 적시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방향할 때, 기도원 문제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지새운 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하셨고, 우리 교단에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으세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사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0:9~17)

성공하길 원하면 광고하라

2002년 아프리카 가나 집회는 애초 주회 측에서 40만가량의 인원이 몰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가슴을 안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갔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보여주시는데, 집회에 사람들이 시들한 나무 아래 조금 모여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지에 가보니 전혀 광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분명히 매스컴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고 비용까지 받아놓고서는 그저 벽보나 붙이는 초보적 광고로 준비하고 있었습니 다. 아니, 광고를 안 하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초석 목사를 누가 알겠습니 까? 황당했지요. 그러나 제 성격 아시죠? 저는 위기 때면 더욱 진격하는 스타일이 지 않습니까? 라디오 방송국 4개사를 찾아가 인터뷰광고를 하고, 직접 광고전단지 를 들고 시장으로 나가 적극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그 결과 하마터면 무산될 뻔한 집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2006년,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해 연안 도시에 있는 오데사 집회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집회를 준비한 니콜라이 목사는 집회 장소로 88체육관 만한 넓은 장소를 빌려놓았지만, 실상 집회에 찾아온 사람은 300~400명 정도였던 참담한 집회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광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 다. 니콜라이 목사로서는 하나님의 큰 종을 모시고만 오면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착각했습니다. 술한 도시의 집회에서 대성황을 이루는 사건들을 목격한 그는 ‘오데사 정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라 해도 광고하지 않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광고는 생존전략이요 성공에 이르는 첩경이다

여러분, 광고는 성공의 기본전략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광고를 하셨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스스로 광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광고를 전단지, 곧 성경에 실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베들레헨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미5:2).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하시는지, 그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통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요1:26~27)고 광고하셨습니다. 마침내 광고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광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작정 광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고 전

락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이 니이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대답 대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11:5)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청각적인 감동보다 시각적인 감동이 크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로 광고를 듣는 것보다 TV로 광고를 보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요4:48)고 말씀하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광고 전략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으셨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였고, 귀먹은 자들을 듣게 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천국의 소망에 대해 설파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요11:45). 저도 예수님의 광고 전

락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모든 집회 전에 성령의 역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목회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병을 고치고, 지금 귀신이 나가고, 지금 축복을 받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믿지 말라고 말려도, 절대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줄을 설 겁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광고 방법은 시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광고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귀신을 쫓을 때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하면 “몰랐어.”라며 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피 값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렘33:8). 전파해야, 광고해야 합니다. 광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TV나 라디오, 신문 등 온갖 매체를 통해 광고에 열을 내는 겁니다. TV의 20초짜리 광고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러나 그건 약과입니다. 슈

퍼볼(미국 프로미식축구 챔피언 결정전)의 광고료는 30초당 자그마치 30억 이상입니다. 초당 1억인 셈입니다. 그래도 서로 광고를 내려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4).

레일을 잘 갈아야 기차가 잘 달린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관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때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아내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벧전3:1).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으박지르는 것보다 남편에게 행위의 본을 보이면 ‘과연 우리 집사람은 달라.’ 하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반듯하고 옳게 행동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나 광고모델이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모델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언제 가장 광고를 잘하느냐? 언제 침을 튀겨가며 광고에 힘쓰느냐? 그건 내가 체험했을 때입니다. “**엄마, 이 화장품 말이야. 한번 발라봤는데 주름이 다리미로 다린 것처럼 짝 퍼져. 진짜야. 내 말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써봤으니까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불이 붙어야 남에게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가서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가짜 목사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확실한 경험,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는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열심히 광고하고 광고합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

미국 노동부는 지난 9월 13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 올랐다고 발표하였고, 연준은 목표치인 8.0%보다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전문가들 또한 2023년 1/4분기 이전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4.5%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온 초저금리에다 중국 및 일부 개발도상국에 편중된 제조업으로 자국의 사업환경이 악화되자 단기 수익률이 더 높아 보이는 자본시장에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covid19 이후 각국이 앞다투어 집행한 무제한적 통화량 공급은 투자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까지 대출을 받아 원금보전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는 각종 금융 및 자산시장에 참여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렇게 과다 공급된 통화량은 전통적으로 낮은 물가상승률과 안정적인 자산가격을 유지하던 미국 시장에도 통제불능 수준의 물가상승을 유발하였지만 연준은 시장의 폭락을 우려하여 이론적으로도 찾기가 어려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금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전 세계는 그들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22년 4/4분기를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도 자산,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의 거래가격이 빠

르게 하락할 것이고,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어있는 주요 국가들의 시장도 연쇄적,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GDP 혹은 평균소득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추후 중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작금의 현상은 가깝게는 covid19로 무리하게 공급한 통화량의 팽창에서 비롯되었다지만, 브레튼우즈 합의 때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달러화 대신 국제통화 도입을 제안했음에도 신흥 강자 미국의 주장에 압도되어 달러화와 미국 내에 예치된 금을 기준으로 하는 안을 채택하였고, 그 후 30년이 지나지 않아 1971년 금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다시 원유에 대한 거래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지정한 이후부터 이와 같은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의 옹립을 간언했을 때 인간의 본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추인하셨으나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세세히 경고하셨고, 선택을 잘못된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가장 천대받는 민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도움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이 난국을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잠4:7).

이윤석 집사

:: 신앙논객::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

배우나 대중가수, 스포츠 스타들이 좋은 작품이나 우수한 경기 결과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국위선양, 마을의 자랑, 가문의 영광도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신4:24, 사42:8).

성경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책망하러 온 사무엘 앞에서 핑계와 변명에 급급한 것도 모자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체면을 세워달라고 졸랐다. 하나님은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고, 그의 왕좌를 빼앗아 뱀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다윗에게 주셨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유대의 왕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와 같다.”고 칭

송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즉시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고 만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먼저 준비하는 과정부터 달라야 한다. 세상일은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서 잘 준비하면 그만이었지만, 하나님 일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목사님께서 한 번의 설교를 위해 6~7시간씩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또한 그 일로 인해 나의 명성이 높아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세계적인 부흥사이기도하신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미리 만들어놓으신 묘비에는 ‘예수의 종 이초석’ 외에 다른 수식어가 없다.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주인 되신 예수님 뜻대로 살다 가겠다는 목사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해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결국은 다르다(요7:18).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자.

신혁주 전도사

그리움 & 보고픔

시냇물에 내 맘 실어 바람에 띄워
임에게 소식 전해 띄워보나 무소식뿐이라네
분홍중이 비행기 접어
임에게 소식 전해 궁중에 띄워봐도 무소식뿐이라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왜 이리 그리운지 내 맘 가늠 길 없구나
소식 끊긴 다리, 언제나 연결되려나
멈춰선 철마는 소식 실고 임 있는 곳 달리고파
오늘도 기적소리 올리건만
감감무소식에 잠 못 이루누나
아~ 아~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별 탈 없길 기도할 뿐이라오

통일을 염원하며 朋友

:: 생명의 말씀 ::

소망이 주는 힘

추석을 전후로 연이어 태풍 소식이다. 한반도를 휩쓸고 간 힌남노로 피해가 엄청나다. 그중 극적으로 생존한 소식도 접했다. 14시간 동안 침수된 지하 주차장 천장의 배관을 붙잡고 버텨야만 했던, 생존을 위한 힘겨웠던 사투의 이야기다. 그 두려웠을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생을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한다. 누구도 도움 이 없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작은 소망이 생존의 끈이 된 것이다. 눈으로 보여지는 확증이 있으면 누구나 안심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야만 하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일이다. 인내하고 버텨야 할 과정으로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덕목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중에서 어찌 보면 소망은 제일 비인기 종목이다. 보통 신앙생활의 제일 가치로서 믿음을 든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상 받고, 열매 맺는다 한다. 믿음 여부가 인간의 공로와 직결되는 것 같기에 드러내 놓고 자랑할 만도 하다. 또한 신앙의 완성이요 결론으로서 셋 중에 제일인 사랑을

많이 강조한다. 사랑이 전부라 하기에, 사랑의 덕목을 풍성히 지니면 왠지 성인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소망은 왠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듯하다. 어떤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아직은 자랑할 일이 못 된다. 과정 중에 있기에 드러낼 열매도 없다. 사실, 믿음은 내 안에서 본질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가페 사랑도 불가능하다. 사실 본래적으로 내 것은 없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건 소망이다. 소망이란 다가올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고 들어와서, 현재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소망 때문에 미래를 앞당겨 살았던 아브라함, 요셉은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사고 유골을 묻었다. 지금은 부재하신 예수를 소망하는 삶은, 우리를 천국이라는 미래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8:24~25).

송직화 목사

:: 청춘, 아름다운 이름 ::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스물네 살이 된 저는 마음이 괴롭고 불안했습니다. 1년간 손 놓았던 전공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을지, 후배들과 함께하는 학과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듬해 취업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든 게 막막하게 다가왔죠. 10대 때 상상했던 스물네 살의 저는 좀 더 어른스럽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불안정하고 어설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 다. 30대가 돼서도 지금 모습과 같다면 삶을 것 같았죠. 그 때 저는 일기장을 펼치고 제가 바라는 30대의 모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 다. 30대의 나는, 1. OO광고회사에 다닌다. 2.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주저 없이 말하는 사람이다. 3. 프리랜서로 종종 글을 쓴다. 4. 맡은 일을 잘 처리해 어딜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5. 바빠도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 6. 학자금 대출을 전부 갚고 주택 자금을 알뜰히 모은다. 7. 내가 번 돈으로 독립해서 생활하며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 8. 영어와 일본어 회화가 가능하다. 9. 인도, 네팔, 필리핀, 일본, 미국, 유럽, 멕시코, 아프리카 등을 두루 여행한다. 10. 나의 재능으로 교회에 봉사한다. 11. 온유하고 긍정적이며 좋은 언어만 사용한다. 뒤이어 이렇게 썼습니 다. “하루아침에 이

런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내일모레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일기장 귀퉁이에는 ‘30대 때 읽어보기’라고 표시까지 해두었죠. 당시 저는 위에 쓴 11가지 중 단 한 가지에도 속한 게 없었기에 제 손으로 일기를 쓰 는 와중에도 과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그저 바라는 것을 적었을 뿐이었죠. 두 달 뒤 복학을 했고, 전공과 부전공 공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 다. 자주 좌절했고 가끔 뿌듯해하며, 도망치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뿐이었죠. 서른 중반이 넘은 어느 날, 지난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30대 때 읽어보기’라고 쓴 일기를 읽고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 다.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모든 게 현실이 되어 있었고, 스물네 살의 제가 꿈꿨던 모습보다 훨씬 나은 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에세이 책을 썼으며, 교회 신문에 글 쓰는 봉사를 하고 여러 나라를 여행했죠. 학자금 대출을 갚았고 넉넉히 벌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종잣돈을 모으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습니 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렸죠. 그리

고 여전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 다. 얼마 전, 20대 초반의 청년들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 다. 20대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아름답게 빛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할 수 있는 나이겠구나 싶었습니 다. 저의 20대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 다. 자신이 원하는 30대의 모습을 일기장에 적어보라고요.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보내보라고요.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겠지만, 분명 원하는 대로 될 테니까 자신을 믿어보라고요. 너에겐 너의 미래를 원하는 대로 만들 능력이 있다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하지 말고, 선불리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 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 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자고요. 마음 깊이 응원합니 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1~12절) .

신은혜

JC ACADEMY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삶을 대하는 태도

가끔,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어 버리는 세상의 풍습과 관례의 수건을 목에 걸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보인다. 고백하건대 나 역시 그럴 때가 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는 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그리스도인,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세상의 사물일랑 잊어버리기 원하신다. 진리가 실제 생활에 들어오면, 생활의 표준은 성경의 요구에 따라서 더욱 높이 향상되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 풍습, 관례, 처세술 등과 불가불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상은 바다의 파도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은총의 참된 원칙에서 떠나도록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바위와 같이 성경 말씀의 원칙에 확고히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현재 자기가 겪는 고통이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돌

리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다. “아무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지,”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운이 좀 더 따라줬더라면.” 등등, 자기 외의 대상을 탓하며 자기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며 합리화한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또한 갈수록 이웃(혹은 가족이나 친구)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외적인 조건이 바뀌기를 바라기 이전에 나 자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가?’이다. 자기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남을 탓하는 시간에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노력은 물론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더해지는 것이라 본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응하

고자 한다면 자신의 노력과 의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면서 계속 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배가 옛 항구를 떠나 희망의 나라를 향해 가려면 옛 항구에 자신을 묶어놓았던 닻을 올려야 한다. 그런데 다른 무언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자신을 과거에 얽어매는 어리석은 태도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도 초월하여 자신이 가진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든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의 관습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Dr. 권정미

::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계획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성격유형지표를 말합니다. 이는 과거 사람들의 성격을 A, B, O형 등 혈액형별로 알아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유형을 외향형/내향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판단형/인식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중 필자는 ‘ENPJ’로 상당히 외향적이고 계획형 인간에 속합니다. 또, 십몇년간 방송일을 하면서 촬영, 편집, 송출 등등 매우 정확해야 하는 방송 스케줄과 매일, 매시간, 매분 오차가 없어야 하기에 더 계획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 그리하여 이번 신학교 금식 수련회는 저의 계획에 없던 ‘돌발’로 시작하여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여타 집회와 달리 2박 3일간의 타임테이블을 전혀 알 수 없는 훈련이었습니다. 밥을 굶은 금식보다, 하루 8시간의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스케줄인가?’라는 나의 하루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오르라’면 산에 오르고, ‘말씀보라’면 말씀을 보았으며 ‘좋은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중에 깊게 깨달은 것은 나의 하루를 결정하는 것은 목사님이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생들만 그 스케줄을 몰랐을 뿐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미리 숙소와 산 위의 별목 등등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길을 닦아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이 계획한 결정이 아니기에 어리석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꽃길을 때로는 마다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보다 우선시 되는 것(잠19:21)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송헌혜 생도

